

이영빈 LEE Youngbin

1. 전시개요

제 목 : 이영빈 LEE Yongbin 개인전
일 시 : 2011. 5. 20(금) - 6. 26(일), 38일간
(오프닝 2011. 5. 20 (금) 17:00)
장 소 : 학교재갤러리
출품작 : 회화 10점, 드로잉 158점

2. 전시내용

학교재에서는 일상의 사소함을 다루는 회화작업을 통해 세상에 대한 자신의 진술을 펼치는 작가 이영빈(31)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2005년 스페이스 셀에서의 1회 개인전, 드로잉 위주로 구성한 갤러리 알토그래프의 2회 개인전 이후 3년 만에 갖는 세 번째 개인전이다. 꾸준히 작업했지만 개인전을 통해 본격적으로 선보인 적은 없었던 **목욕탕 시리즈** 근작들을 선보이는 첫 전시이다. 그에게 회화는 자신을 둘러싼 일상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매체이다. 지극히 주관적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평가한 시선이 담긴 작업들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자기 고백적 진술이다. 작업을 통해 그는 타인과의 관계를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을 연습한다. 이러한 과정은 세상과 대화를 시도하려는 작가의 욕망이기도 하다. 본 전시는 씻음의 행위를 통한 내면의 치유를 주제로 담고 있는 <탕> 시리즈와 사소한 일상 속 독백을 자유롭게 담은 드로잉 158점을 함께 전시한다.

3. 전시주제

목욕탕, 인간의 진실한 내면을 마주하는 공간

이영빈에게 회화는 일상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매체이다. 지극히 주관적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평가한 작가의 시선이 담긴 작업들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자기 고백적 진술이다. 때문에 그의 작업은 작가의 목소리와 무척 닮아있다. 그는 자신의 소박한 경험들을 그리고 공유하며 주변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자신과 유사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사람들의 의식, 그리고 사회와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자신만의 틀로 바라본다. 이러한 그의 시선은 한 눈에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조감시점으로 묘사한 '탕'이라는 공간에서 구현된다.

2002년부터 꾸준히 목욕탕을 주제로 작업한 그는 걸치레를 통해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정체성을 드러낼 수 없는 목욕탕에 자신을 배치하여 자신의 솔직한 내면을 드러냈다. 타인을 신경 쓰지 않은 채 발가벗고 자신을 씻는 이 장소에서 작가는 솔직하고 진실한 내면을 마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음(陰)에 대한 긍정

음(陰)을 긍정하는 작가의 태도는 그의 작업 전반에서 나타나는 주제이다. 여기서 음(陰)은 겨울, 어둠, 고독, 단절, 죽음 등을 말한다. 작가는 희망과 승리는 좌절과 패배가 있기에 주어질 수 있는 가치임을 항상 되새겨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겨울을 지나야 여름이 오고, 죽음이 있기에 탄생이 가능하다는 당연한 논리지만, 사람들이 마주하기 싫어하는 것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태도가 삶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

작가는 인간이 몸을 씻는 행위가 음(陰)을 받아들이는 것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씻는 행위는 불안, 고독, 좌절, 상처와 같은 음(陰)의 가치들을 마주하고 스스로 벗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에게 그림을 그리는 행위 역시 자신을 씻는 과정으로 인내와 수양을 통해 삶의 필연적인 가치들을 수용한다는 의미를 뜻한다. 이렇게 그는 작업을 통해 스스로 한계를 극복하고 치유하려고 노력한다. 다양한 가치들을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껴안는 자세가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이영빈의 작품을 아우르는 주된 핵심이다.

드로잉, 내면에 귀 기울이는 방법

그는 작업을 통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의 소중함과 진지함을 느끼고 표현하고자 한다. 내면에 있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자하는 작업의지는 발가벗은 인체를 즉흥적으로 드로잉하는 자기감정에 충실한 작업행위로 나타난다. 따라서 그에게 드로잉은 목욕탕에서 발가벗은 채 자신을 드러내는 것 처럼 자신의 감정에도 옷을 입히지 않은 날것의 의미이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최대한 솔직하게 표현한 드로잉은 그의 생활 속에서 뗄 수 없는 삶의 일부이기도 하다.

삶에서 결과보다는 과정과 순간의 감정을 중요시하는 태도는 얇은 갱지위에 연필로 소박하게 그리는 방식을 선호하는 측면에서도 엿볼 수 있다. 자신의 생활 속 단상을 즉흥적으로 옮긴 드로잉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억압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작가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4. 작품소개



탕 Ba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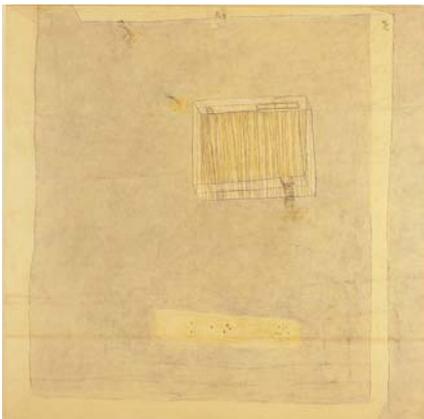
종이에 먹, 담채

Korean ink, Watercolor on paper

128x159cm, 2011

이영빈은 한 화면 안에서 다양한 시점을 채택한다. 기본적으로 한 눈에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조감시점으로 묘사한 공간 안에는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시점과 아래에서 위를 조망하는 두 시점이 공존한다. 그는 일점소실 원근법에 준하는 시각이 아닌 열려 있는 공간의 구도를 통해 관람객에게 공간이 주는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수많은 선들의 교차로 이루어진 목욕탕의 모습은 단절되고 폐쇄적인 공간을 의미하지만, **횡으로 종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선을 통해 공간 속에서 다각적으로 얽히고 연결되어 있는 세상 사람들의 관계성을 나타낸다.**



하늘 Sk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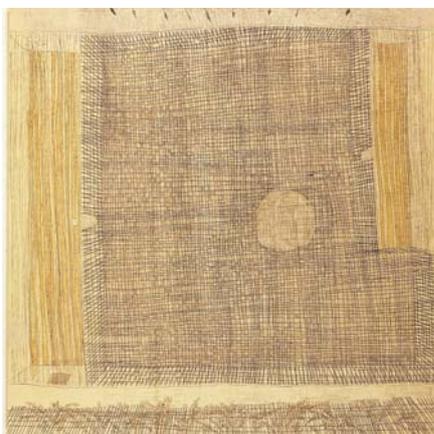
종이에 먹, 담채

Korean ink, Watercolor on paper

154x154cm, 2011

작가는 작품〈하늘〉에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의 모습을 그렸다. 중앙에 있는 작은 인물은 어린 시절의 이영빈이다. 그는 **어릴 적 사다리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던 중, 넘어져 땅으로 떨어졌던 에피소드를 그렸다.** 작가가 경험한 과거의 단편적인 사건은 떨어지는 것, 하락(下落)하는 것을 상징한다.

화폭 안에서 바닥처럼 보이는 텅 빈 공간은 하늘을 그린 것이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닥이 된다. 이렇게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는 화면의 구도는 **하락하는 것을 포용하고 긍정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탕 Bath

종이에 먹, 담채

Korean ink, Watercolor on paper

154x154cm, 2011

이 작품에는 목욕탕의 모습과 함께 시들어가는 장미꽃, 태생부터 자기 몸에 가시를 지닌 가시나무가 좌우로 배치되어있다. 이렇게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것들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그리면서 이영빈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음(陰)의 가치들을 **긍정적으로 껴안으려고 하는 의지를 나타냈다.**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는 구도는 역시 제한적이고 부정적인 가치들도 모두 **축복일 수 있다**는 시선의 표현이다.

5. 작가약력

이영빈

2004 성신여자대학교 동양화과 졸업
200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개인전

2011 학교재갤러리, 서울
2008 갤러리 알토그래프, 파주
2005 스페이스 셀, 서울

단체전

2010 춘추, 학교재갤러리, 서울
2009 Emotional Drawing, 소마미술관, 서울
2008 일상의 수묵, 가인갤러리, 서울
2007 Into Drawing, 소마드로잉센터, 서울
VISUAL SOUND, 카이스갤러리, 서울
일상의 초대, 신세계갤러리, 서울
2006 ISA, 인사미술 공간, 서울
간이역-休, 부산시립미술관
2005 포트폴리오 2005, 서울시립미술관
일기 읽기, 갤러리우덕, 서울
일인칭의 공간, 선화랑, 서울
2004 아트서울, 예술의 전당, 서울
Vision21, 수정관, 성신여자대학교, 서울

LEE Youngbin

2004 B.F.A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2009 M.F.A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Solo Exhibitions

2011 Hakgojae Gallery, Seoul
2008 Gallery A.R.T.O.G.R.A.P.H, Paju, Korea
2005 Space Cell, Seoul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0 Spring and Autumn, Hakgojae Gallery, Seoul
2009 Emotional Drawing, Seoul Olympic Museum of Art
2008 Korean Painting for Every Life, Gaain Gallery, Seoul
2007 Into Drawing, SOMA Drawing Center, Seoul
VISUAL SOUND, CAIS Gallery, Seoul
Invitation for Everyday Life, SHINSEGAE Gallery, Seoul
2006 ISA, Insa Art Space, Seoul
Why don't we take a short rest?, Busan Museum of Art
2005 Portfolio 2005, Seoul Museum of Art
Reading Diary, Gallery Wooduk, Seoul
A First-Person Space, Sun Gallery, Seoul
2004 Art Seoul, Seoul Art Center
Vision21, Su-Jeong Bldg.,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7. 작가노트

- 학교재 웹하드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조, 없던 것을 있게 하는 일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는 일. 여기서 새로운 것은 나쁜 것이 아닌 좋은 것.
여기서 좋은 것은 기존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것을 느끼는 이 창조자, 그것을 만드는 이 창조자
외부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 자기 세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
존재하는 것

현상, 이외에 존재하는 것
세계, 자율신경계, 그리고 그 이외의 것
현상, 그 이상의 것
현상, 그와는 별개의 것. 중요한 건 현상, 그 이외의 것

나에게 의미인 의미
내가 발견하는 가치들. 내가 느끼는 충만함들
물질 그 이상의 것들
상대성이 아닌 절대적인 것들
교환할 수 없는 것들
개인의 역사 속에 형성되는 것들
그 순간 내가 믿고 있는 것들. 나에게 인정되는 것들
받을 가꿔서 수확한 당근 무 배추 그리고 그 이외의 것. 그 역사, 이야기
소모되지 않았고 소모된 일도 없는 것
이미 만들어 질 수도 없고 만들어 놓아서 누군가에게 줄 수도 없는 자기 스스로 만들어 내야 하는 것